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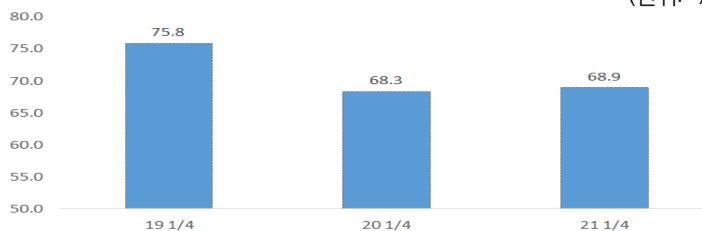
-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됨
 - 우리나라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분기에는 75.8%였으나 2020년, 2021년 1/4분기 각각 68.3%, 2021년 68.9%를 기록하였음
-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컸음
 - 2021년과 2019년의 1/4분기 사이에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큰 순으로 나열하면 2분위 -14.1%p, 1분위 -11.9%p, 4분위 -11.4%p, 3분위 -6.4%p, 5분위 -3.3%p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낮은 1, 2분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보면 60세 이상과 50대 가구 등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2019년 1/4분기~2021년 1/4분기 중에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큰 순으로 나열하면 60대 이상 가구 -10.60%p, 50대 가구 -7.70%p, 30대 이하 가구 -7.00%p, 40대 가구 -2.60%p로 나타남
-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보조 못지않게 소비성향의 회복이 매우 중요할 것임
- 평균소비성향(또는 저축률)은 일시적인 소득 여건보다는 장기적인 여건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가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 가계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판단하고, 사회보험료나 조세 부담 상승을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소비와 저축 결정에 대해 가계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코로나19 이후 소비성향, 저축률 추이

- 2021년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소비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소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21년에 들어서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소비 진작 방안도 강구되고 있음
 -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21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도소매업 판매지수도 2021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3%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동월비 7.3% 상승함
 -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소비지출도 2021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명목), 0.5%(실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19와 함께 급격히 하락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향후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1/4분기 75.8%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2020년 1/4분기에는 68.3%로 하락¹⁾하였음
 - 2021년 1/4분기에도 평균소비성향은 68.9%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 평균소비성향은 '지출 가능한 소득에서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축률(흑자율: 1-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저축률(흑자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4분기 25.0%에서 2021년 1/4분기 31.1%로 상승한 것임

〈그림 1〉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비성향의 변화를 소득수준별, 가구주 연령별 등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고는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의 경상 기준값²⁾을 기초로 하였음

1)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함

2) 실질값에 의한 통계는 가구주 연령별 통계가 없기 때문에 경상값에 의한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조사표본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비교대상 연도는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국한함



2. 소득계층별 특징

- 2021년 1/4분기 가계소득의 규모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지출은 1분위 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51.1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분기 335.8만 원에 비해 4.6%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비지출은 2021년 1/4분기 월평균 241.9만 원으로 2019년 1/4분기 254.5만 원의 9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소비수준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제일 낮은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분위·3분위·4분위·5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지만, 소비지출은 하회함
 - 1분위 가계의 경우 2021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이 2019년 동기간 대비 각각 11.9%, 3.9%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증가 정도에 비해 소비 증가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1〉 소득계층별 소득과 소비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19년 1/4		2020년 1/4		2021년 1/4		(21년 1/4) /(19년 1/4)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전체	처분가능소득	335.8	-	348.2	3.68	351.1	0.84	104.6
	소비지출	254.5	-	238.0	-6.50	241.9	1.64	95.0
1분위	처분가능소득	65.0	-	65.2	0.25	72.8	11.63	111.9
	소비지출	108.2	-	102.4	-5.37	112.5	9.82	103.9
2분위	처분가능소득	175.2	-	181.6	3.65	191.7	5.55	109.4
	소비지출	173.1	-	158.7	-8.36	162.3	2.26	93.7
3분위	처분가능소득	285.7	-	283.5	-0.77	298.1	5.13	104.3
	소비지출	230.8	-	209.8	-9.10	221.7	5.69	96.1
4분위	처분가능소득	415.4	-	425.0	2.33	434.5	2.22	104.6
	소비지출	319.5	-	287.3	-10.08	284.5	-1.00	89.0
5분위	처분가능소득	737.2	-	784.9	6.47	758.0	-3.43	102.8
	소비지출	440.5	-	431.3	-2.08	428.2	-0.72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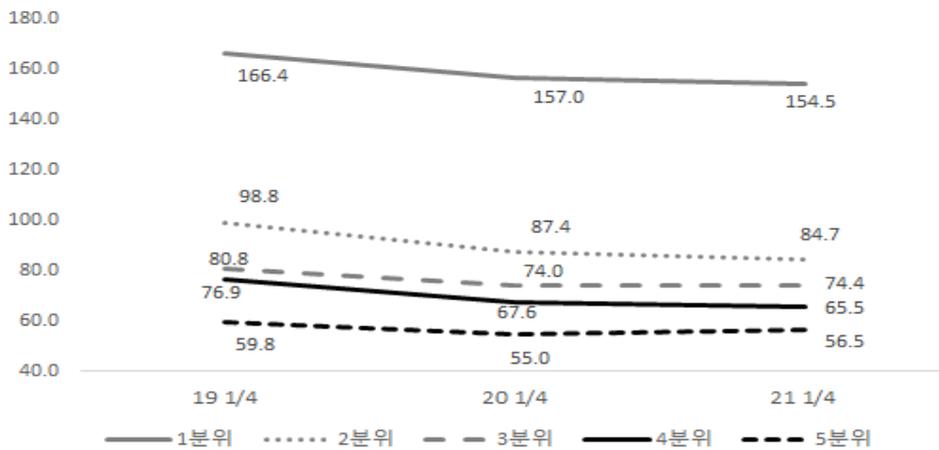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의 추이를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의 소득계층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그림 2〉 참조)
 - 최근 3개년의 1/4분기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2020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졌으며, 특히 1분위·2분위·4분위는 2년 연속 하락하였음

- 3분위·5분위의 경우 2021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악화된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2분위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2021년과 2019년의 1/4분기 사이에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큰 순으로 나열하면 2분위 -14.1%p, 1분위 -11.9%p, 4분위 -11.4%p, 3분위 -6.4%p, 5분위 -3.3%p로 나타남
- 저소득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이들 계층의 소득이 회복되어도 소비회복은 기대보다 더딜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림 2〉 소득수준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3. 가구주 연령별 특징

-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2021년 1/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40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높게 나타났음
 - 4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수준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 1/4분기 대비 98.0% 수준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반면, 2021년 1/4분기 소비지출 규모는 60세 이상 가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9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60대 가구는 타 연령대 대비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이 각각 18.6%, 2.6% 증가하여 소비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임

〈표 2〉 가구주 연령별 소득과 소비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19년 1/4		2020년 1/4		2021년 1/4		(21년 1/4) /(19년 1/4)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전체	처분가능소득	335.8	-	348.2	3.68	351.1	0.84	104.6
	소비지출	254.5	-	238.0	-6.50	241.9	1.64	95.0
39세 이하	처분가능소득	343.8	-	352.0	2.39	362.2	2.89	105.3
	소비지출	242.7	-	231.4	-4.68	230.4	-0.42	94.9
40~49세	처분가능소득	427.8	-	436.1	1.94	419.4	-3.83	98.0
	소비지출	337.0	-	314.8	-6.60	319.5	1.51	94.8
50~59세	처분가능소득	402.6	-	412.6	2.46	418.5	1.45	103.9
	소비지출	303.5	-	280.7	-7.49	283.3	0.90	93.3
60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214.4	-	240.3	12.05	254.2	5.80	118.6
	소비지출	167.8	-	160.6	-4.33	172.2	7.27	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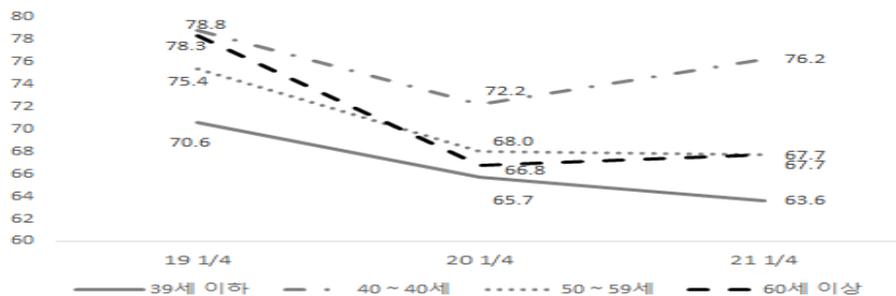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과 50대 가구 즉,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그림 3〉 참조)

-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4분기)에 비해 2021년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4분기~2021년 1/4분기 중에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큰 순으로 나열하면, 60대 이상 가구 -10.6%p, 50대 가구 -7.70%p, 30대 이하 가구 -7.00%p, 40대 가구 -2.60%p로 나타남
 - 40대 가구의 경우 2021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현저히 상승(72.2%→76.2%)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3〉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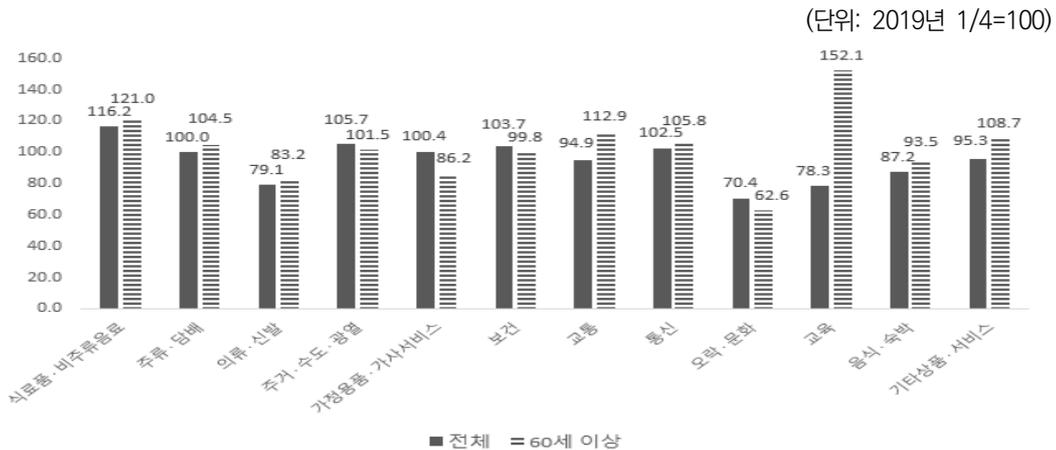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 건강위험이 높은 고령층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의료·신발, 음식·숙박(외식 포함)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소비 항목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타 연령층과 비교 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그림 4) 참조
 - 교통, 의류·신발, 음식·숙박(외식 포함) 등 코로나 19 영향이 컸던 항목에서 60세 이상 가구의 2019년 대비 소비 규모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 시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음

〈그림 4〉 60대 이상 가구의 2019년 대비 2021년 1/4분기 부문별 소비



자료: 통계청



4. 시사점

-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내수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보조 못지않게 소비성향의 회복도 매우 중요할 것임
 -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지급은 가계의 지출여력을 확대시켜주기 때문에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임
 - 그러나 소비성향이 하락(저축률이 상승)하면 지원규모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에 제한이 생겨 마중물 효과가 기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이는 저축률이 상승하면 재정 승수³⁾가 작아져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약해짐⁴⁾을 의미함

- 3) 재정을 가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을 경우 조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재정 승수는 $\Delta Y = \frac{(1-s)}{s} \Delta G$ (Y: 국민소득, G: 재정지출, s: 저축률)으로 표기할 수 있음. 따라서 s(저축률)이 커질수록 보조금의 소득증대 효과는 감소하게 됨
- 4)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높은 저축률이 필요했으나, 자본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충분한 유효수요가 더욱 중요해짐. 높은 평균소비성향(낮은 저축률)은 유효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 평균소비성향(또는 저축률)은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여건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가계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판단한다면, 지출여력이 증가한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소비지출에 활용할 것임
 - 우리나라 가계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판단하는 반면, 조세나 사회보험금의 부담 증가는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소비와 저축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은퇴연령이 가깝거나 통상적인 은퇴연령이 지난 50대·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래의 경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요인에 타 연령대 대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의 경우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 61.52세, 전체 평균 52.87세) 저소득층의 특징은 고연령층의 특징과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음